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삭감' 지역 시장 홀대 논란

일로오일장 문화공연 예산 삭감 각설이·폼바 등 장날 1천명 이용 인근 대형축제 수익원 지원 대조

무안 일로읍오일장 상인들이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외부 소비자들을 유입시킬 버스킹 등 하반기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을 펼치지 못하게 되면서다.

지역민들은 황토갯벌축제, 연꽃축제 등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수익원 단위 예산을 할애해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시켜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은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무안군은 쾌적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군비 3970만원을 들여 클리핑포그를 설치하고 같은해 9월 군비

6000만원을 투입해 주차장 면수 확대 등 주차환경을 개선했다.

또 군비 3000만원으로 3월부터 11월 까지 각설이 폼바와 지역예술인 초청공연 등을 9차례 시행해 일로읍오일장 활성화에 주력했다.

무안군의 환경정비, 문화공연 등의 노력으로 1·6일 장날이 열리면 인근 남악오룡 주민 등 1000여명의 방문객이 시장을 찾았다.

무안군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4·6월 군비 1000만원을 투입해 지역예술인 초청 등 문화공연을 시행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시장 흥행을 이어나가기 위해 무안군은 추경예산 2000만원 예산을 수립했으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일로읍오일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로읍오일장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겨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지역 축제에 사용할 예산을 줄여 전통시장분야에 할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무안군은 축제예산으로 황토갯벌축제 5억원, 연꽃축제 7억원, YB페스티벌에 예산 7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일로읍오일장 상인회 관계자는 "지역 축제를 연다는 명분으로 5·7억원은 쉽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작 전통시장에서 문화공연을 열기 위한 1000만원 단위 예산 삭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삭감 행위는 무안 일로읍주민과 상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남은 2년동안의 균형운영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주민 A(일로읍)씨는 "다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에 예산을 들여 야시장을 운영해 외부인들을 유입시킬 계획을 모색하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축제는 1년에 1~2번 열리는 일회성행사이지만 일로전통시장의 경우 지역 경제기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문화유산의 근간이자 지역민들의 경제활성화와 부자농촌사회를 일구기위해서라도 수익원단 위의 축제 예산을 할애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꾸준히

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해향 지역경제과장은 "일로읍오일장 문화공연 지원사업비가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며 "꾸준한 시장상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 건의로 일로전통시장의 명성을 유지해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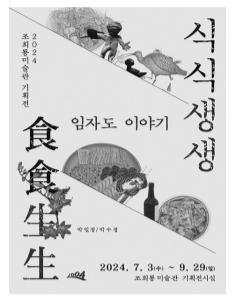
한편 일로읍오일장은 한국 최초 지방장시가 열렸던 곳으로 기록돼 있다.

성종 원년 1470년 전남지방에서 흉년이 일어나자 농민들은 배고픔과 부족한 생활용품을 조달하기 위해 서로의 부족한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장시를 열게 됐다.

영산강 가운데에 위치해 쌀·목화 등 농산물이 풍부하고 서해와 이어져 해산물이 많아 인접지역 상인들이 한데 모여 번창한 곳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임자도 이야기' 기획 전시 신안 조희룡 미술관



신안군 조희룡 미술관은 오는 9월 29일까지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식·식·생·생·食·生-임자도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남도의 식(食)문화와 바다와 갯벌, 자연 생태계 등 남도의 삶(生)을 미술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전시된 작품은 주로 신안, 목포, 무안에서 활동하는 한국화 화가 박수경과 도예가 박일정 작가의 작품이다. 두 작가는 '바다 생물'을 소재로 작품관을 공유하고 있다.

박수경 작가는 바다가 주는 먹거리를 문자와 결합해 음식의 재료와 색깔, 생김새를 조형적으로 해석하며 유쾌하고 정감있게 풀어내고 있다. 먹갈치, 낙지, 준치 등 우리 밥상 속 등장하는 음식들을 그려내 잘 차려진 남도 밥상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박일정 작가는 바다, 섬, 무안반도, 영산강 등 환경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을 토대로 동화적 상상력으로 표현했다. 그는 어릴 때 직접 잡던 망둥어, 게 등의 생물들을 어느 순간부터 다른 곳에서 사서 먹는 경험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까지 순환되는 양상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 작가들이 펼친 이번 전시는 남도의 식문화와 자연 생태계 등 정서를 잘 깨닫게 해주는 전시이다"며 "이번 여름 조희룡 미술관을 찾는 모든 분이 임자도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영암군보건소

영암군보건소가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발생에 대비해 대형건물 및 목욕탕, 노인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8개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발맞춰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검사시설을 10개소 추가했다.

레지오넬라증은 연중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지만,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발생이 빈번하다.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급수시설, 대중 목욕탕의 욕조수,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등이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되는 경우 물방울 형태로 인체에 흡입·감염을 일으킨다. 감염되면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성폐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폐농양, 호흡 부전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암군보건소는 레지오넬라균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설에 청소·소독 등을 실시하게 한 후 재검사, 환경관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이병영 기자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목포시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 부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의 가속으로 신규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

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 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등에 압류 조치하고 상시 변호관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시내 전 지역 모든 체납차량의 변호관 영치(야간영치 포함)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며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거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징수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미쉐린 셰프와 미식자원 발굴 추진

신안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등재된 EVETT 레스토랑의 셰프 조셉 리저우드(이하 셰프 조셉)와 함께 세계 미식가 입맛을 사로잡을 미식자원 발굴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26 UN Tourism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에 전담, 신안군, 전남관광재단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 7일 세계음식관광포럼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유치위원인 셰프 조셉은 식재료 연구와 신메뉴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신안군의 톳, 가사리, 바위웃, 천일염, 막걸리 등 채취·생산 과정 및 수산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체험하고, 관련 전문가를 만났다.

셰프 조셉은 "바다의 식재료를 직접 채취해 보는 경험이 흥미로웠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식재료로 가득한 한상차림에서 수산물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며 "앞으로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는 빼어난 자연조건으로 미네랄 등이 풍부하고 맛이 월등히 좋다"며 "앞으로도 군 미식자원이 세계인에게 소개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다산박물관, 김종철 작가 초대전

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 오는 28일까지 김종철 작가의 초대전 '선비의 벗 사군자'를 개최한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김종철 작가는 현재 강진서가협회 부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예술대제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작가는 대한민국의서예전람회, 대한민국남미술대전, 전남도미술대전, 한라서예전람회 특선 등 다수에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목민심서 서예공모전 초대작가로 활동해 왔다.

이번 개인전은 '선비의 벗 사군자'라는 주제로 봄소식, 오상고절(傲霜孤節), 사랑 등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사군자는 선비이며 동시에 선비의 벗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작가는 사군자의 고결함을 묵으로 표현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군 해제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찾아 방수작업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해제면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무안군 해제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대장 황인섭)가 지난달 27일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방문하여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다.

3일 무안군 해제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에 따르면 대상 가구는 해제면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주택 외부 누수로 방에 곰팡이가 스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복지기동대 대원들은 방수작업을 실시하여 주택 누수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

황인섭 대장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복지기동대를 부르면 언제든지 출동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영 해제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해주신 복지기동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진일보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